

헉슬리의 “진화와 윤리”: 시대의 초상*¹

김기윤
서강대학교

Huxley's “Evolution and Ethics”: A Portrait of the Age

KIM Kiyoon
Sogang University

ABSTRACT

Thomas Henry Huxley's Romanes's Lecture, “Evolution and Ethics,” has been read as a document advocating the autonomy of ethics from the evolutionary science of man. As a matter of fact, in “Evolution and Ethics,” Huxley argued that the ethics, the engine of social progress, meant resolute fight against the cosmic evolutionary process; and it appeared that he was also warning not to exercise evolutionary idea on ethical issues. Yet in his lecture, especially in his “Prolegomena” added to his lecture, he also insisted that the human ethics itself

1 * 이 논문은 2003년도 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 인문사회분야 일반연구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3-074-HS0002). 여러 줄기의 잡다한 내용이 뒤섞여 있던 글을 가지런히 하는데 심사위원의 도움을 받았다.

must be the product of evolution. This seemingly contradictory arguments caused considerable confusion among his posterities in general, and historians of ideas in particular.

During the Nineteenth-Century England, both conservatives and radicals actively used biological theories, especially evolutionary ideas, as scientific principle bolstering their respective ideologies. Huxley himself made it clear that his “Evolution and Ethics” which he dubbed an “egg dance,” was an outrightly political document. Nevertheless, historians have paid little attention to Huxley’s public and private motivation in his “Evolution and Ethics.” This essay tries to explicate the society in which Huxley was living as well as his personal motivation delivering the lecture. His “Evolution and Ethics” turns out to be a vibrant document picturing complex and skewed ways an evolutionary idea has been read, interpreted, and used.

Most posterities saw his “Evolution and Ethics” as a proclamation of the disassociation between evolution and ethics. But close reading of his lecture, and recent reconstruction of his biographical resource demonstrate that through this lecture, Huxley was trying to repudiate Spencerian individualism and Wallacean socialism, both ideologies he considered as threat to the late 19th century British society.

Key Words: Thomas Huxley, Evolution and Ethics, Man of Science, Public Education, Socialism

1. 토마스 헉슬리의 강연 “진화와 윤리”

1893년 5월 15일, 토마스 헉슬리(Thomas H. Huxley, 1825-1895)는 열하루 전 자신의 예순 여덟 번째 생일에 집필을 끝낸 ‘로마니즈 강연’을 위해 인쇄된 원고 한 부를

오랜 벗 틴들(John Tyndall, 1820-1893)에게 보냈다. 동봉한 편지에서 그는 자신을 이제 너무 늙어 버려 신통한 열매가 별로 남아 있지 않은 사과나무에 비유했다. “이 죽어 가는 나무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사과 알이 별로 없구먼. 이제 마지막으로 가지를 뒤흔들어서 수확한 놈을 보내는 바이네.”²⁾ 그리고 사흘 뒤, 그 마지막 수확을 발표하기 위해 헉슬리는 옥스퍼드의 셸던 극장에 나타났다. 육년 전, 각별히 아꼈던 딸 마리안(Marian Collier, 1859-1887)이 죽고 아흐레 뒤였던 1887년 11월 29일, 초췌한 모습으로 기술교육 진흥을 위한 전국 연합(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romotion of Technical Education) 맨체스터 모임에서 조국의 미래를 위해 기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격한 강연을 한 후 처음으로 나서는 대중강연이었다. 감기로 붉어진 코와 멍멍하고 약해진 그의 목소리는 열정적인 제스처로 날카로운 언어를 구사하는 명연설가로 알려진 헉슬리가 왜 여러 해 동안 대중강연을 자제해 왔는지를 말해주는 듯싶었다. 걱정이 된 로마니즈(George J. Romanes, 1848-1894)는 유사시 그의 강연을 대독할 사람까지 준비했다. 그가 강연을 시작하자, 학생들은 좀 더 크게 말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앞쪽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움직였다.

날카로운 독자들은 신문과 정기간행물들을 통해 그의 글이 두 가지 다른 모순된 주장을 담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강연의 초점은 인간의 윤리란 진화에 맞서 싸우며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이야기였는데, 동시에 강연 곳곳과 특히 말미에서 그는 인간의 윤리가 진화의 산물이며 인간은 진화가 이끄는 운명을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것이다. 강연 직후, 헉슬리는 이승을 떠나간 벗들을 생각하며 자신의 글들을 모은 전집 출판을 기획한다. 그리고 그 참에 “진화와 윤리”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논평자들에 답하기 위해 그의 강연에 긴 서문(Prolegomena)을 붙였다.³⁾ 그의 출판된 강연 원고는 즉시 19세기를 빛낼 명문으로 알려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된다. 영국에 유학해

2) 토마스 헉슬리가 존 틴들에게 보낸 1893년 5월 15일자 편지, “T. H. Huxley Papers,” Imperial College, Huxley Archives, Adrian Desmond, *Huxley: From Devil's Disciple to Evolution's High Priest* (Reading, Mass.: Perseus Books, 1999), p. 596에서 재인용. 그 밖의 전기적 내용은 Desmond, *Huxley*에 크게 의존했으며, Paul White, *Thomas Huxley: Making the “Man of Sc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과 Mario Di Gregorio, *T. H. Huxley's Place in Natural Science*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4)도 이용했다.

3) Thomas H. Huxley, “Evolution and Ethics,” in *Collected Essays* (London: Macmillan, 1893-1894), vol. 9 (1894), pp. 46-116. “Prolegomena”는 같은 책 1-43쪽에 실려 있다.

공부했던 중국인 엄복(嚴復, 1853-1921)은 서문과 함께 출판된 헉슬리의 강연 원고를 번역하는 형식을 통하여, 열강의 착취로 신음하는 중국의 미래를 궁리하는 논의를 전개하는 글을 썼다.⁴⁾ 그리고 그 글은 다시 헉슬리의 중요한 강연을 중국 고전 사상을 동원하여 미려하게 풀어놓은 중국 문학의 고전이 된다.⁵⁾ 다시 백년 가까이 세월이 흐른 뒤, 박노자는 엄복의 글을 통해서, 그리고 엄복의 글을 발판삼아 중국사회를 풍미하게 되는 사회진화론을 정초하는 양계초(梁啓超, 1873-1929)를 통해 알려진 사회 진화론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⁶⁾

하지만 21세기 한국인에게 헉슬리의 “진화와 윤리”는 알쏭달쏭한 동화처럼 보인다. 어느 사료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독해를 제공해 줄까마는, 그래도 헉슬리는 언제나 자신의 의견과 입장을 분명히 하는 연설가로 알려져 있지 않았던가. 그는 종교인이나 문인들에게 과학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한 글들을 남겼지만, 노동자나 일반인들을 위한 강연으로 더 유명했다. 그가 재직했던 광산학교는 물론 왕립협회에서, 왕립의학교에서, 피카딜리의 극장에서, 각지의 노동자들과 기술인들을 위한 집회 및 조합에서, 그는 이해하기 쉬운 평이한 언어로 과학을 이야기했다. 강연장에는 보통 백여 명에서 칠팔백 여명의 청중이 몰려들었는데, 이는 대개 그 강연장소의 최대 수용인원이었다. 그의 동료 틴들이 그의 대중 강연에 참석하기 위해 어렵사리 표를 살 수 있었던 일화를 남겼을 정도였다. 그의 강연 내용은 점차 과학 외에도 철학, 교육, 종교, 정치 등 온갖 영역으로 확장되어 나갔는데, 그의 연설은 여전히 청중들을 즐겁게 해 주었다. 거의 모든 강연에서 현란한 은유와 풍자를 자유자재로 이용했지만, 학생, 노동자 그리고 부인들로 이루어진

4) 嚴復, □天演論□ (臺北: 臺灣商務印刷館, 1977/1898). Benjamin Schwartz, *In Search of Wealth and Power: Yen Fu and the Wes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1964). □天演論□에 관한 간단한 논의로는 金鍾潤, “天演論 論析,” □全州史學□ 제 5집 (1997), 41-68쪽을 보라.

5) 이러한 판단은 James Reeve Pusey, *China and Charles Darwin* (Cambridge, Ma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에 의존했다. Pusey, *Lu Xun & Evolution*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1998) 역시 유용했다.

6) 박노자, □우승(優勝)열패(劣敗)의 신화□(한겨레신문사, 2005). 양계초는 □天演論□이 출간되기 2년 전인 1896년에 이미 엄복의 번역원고를 읽었다고 한다. Hao Chang, *Liang Ch'i-ch'ao and Intellectual Tradition in China: 1890-1907*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p. 64.

청중은 그의 강연 내용을 즉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언제나 당시의 사회, 종교, 문화, 정치적 이슈들과 긴밀히 연결된 은유와 풍자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⁷⁾ 사실 “진화와 윤리”는 19세기 후반, 특히 1890년 전후 영국 제국의 상황과 헉슬리의 삶을 젖혀두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텍스트인 것이다.

헉슬리의 강연은 강낭콩 줄기를 따라 하늘로 올라가는 탐험을 감행하는 소년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콩 줄기를 따라 소년이 올라가 본 하늘 위의 세상은 지상과 똑같은 원소들로 이루어진, 일면 지상과 같은 세계였다. 하지만 강낭콩이 만들어 낸 하늘 위 세계의 풍경은 이상스럽도록 새로웠다. 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누구나 사물의 본성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하늘을 뒤덮은 콩 역시 잎, 줄기, 뿌리, 꽃 등의 복잡하고 섬세한 기관들과 그 작용들의 집합체인, 콩은 콩일 뿐이었다. 이 섬세한 유기체가 하늘을 뒤덮으며 번성하기 위해서는 주변 식물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게다가 시간이 흐르면 이 놀라운 생명체는 분해되어 사라지고, 남겨진 씨앗이 다시 싹트면서 새로운 생명과정이 시작되는 것이 우주의 과정(cosmic process)이다. 동물이나 인간 역시 식물과 마찬가지로 생존을 위한 투쟁 과정을 거치게 되는 순환하는 우주의 진화과정을 되풀이하게 된다. 인간 사회의 진보를 위해서도 성공적인 투쟁과정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인간의 진보란 이와는 반대되는 과정을, 즉 자신이 타고 오른 사다리를 걷어차고 새로운 태도를 지니는 과정을 의미한다. 문명화 된 인간은 동물적인 투쟁을 죄악시한다. 문명사회에서 사람들은 심지어 적자로 살아남기 위한 투쟁을 지나치게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듯싶은 자의 목을 베어 벌하기까지 한다.⁸⁾

생존을 위한 투쟁에 가장 유용해 보이는 행위를 벌하는 이러한 태도는 문명화 된 인간의 징표다. 따라서 도덕적 감성과 같은 문명사회 인간 특유의 성질을 진화의 결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도덕적 감성이 진화의 결과라면, 비도덕적 경향 역시 진화의 결과다. “도둑이나 살인자 역시” 박애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자연의 산물이다. 따라서 우주의 진화가 인간의 갖가지 성향이 어떻게 진화해 나왔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르다고 보는 관점보다 옳다고 보는 관점을 따라야 할 이유를

7) J. Vernon Jensen, *Thomas Henry Huxley: Communicating for Science* (Newark: University of Delaware Press, 1991).

8) “Evolution and Ethics,” pp. 51-52.

말해주지는 못한다.⁹⁾ 사회 속의 인간은 우주의 진화과정을 따라 진화의 결과로 생겨났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의 진보란 모든 단계에서 우주의 과정을 막아내면서, 이 우주의 과정을 전혀 다른 방향성을 지니는 윤리적 과정으로 바꾸어 놓는 행위를 통해 성취된다. 이 윤리적 과정이란 사회가 맞닥뜨린 자연조건들 안에서 적자가 될 수 있었던 자들이 살아남는 과정이 아니다. 그 반대로 윤리적으로 가장 훌륭한 자들이 살아남게 만드는 과정이다.”¹⁰⁾

따라서 스토아 철학이나 동양철학을 들먹이면서 우주의 진화로부터 빌려온 유비를 인간 사회에 적용해 가며 묵묵히 우주의 법칙을 따라야한다는 주장은 국가에 대한 개인의 책무를 망각하고, 권리라는 이름 아래 이기적인 자기주장을 고집하는 잘못된 견해다. 사실, “사회의 윤리적 진보는 우주의 과정을 흉내냄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주의 과정으로부터 도망침으로써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우주의 과정과 싸워 나가면서 얻어지는 것이다.”¹¹⁾ 헉슬리는 연설 중간에 상당한 시간에 걸쳐 스토아 철학이나 동양 종교들을 들먹이면서 자연에 몸을 맡기는 듯 한 태도, 우주에 순응할 것을 설파하는 태도는 반문명적인, 따라서 비윤리적인 태도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렇게 우주와 투쟁해 가면서 문명화 된 인간사회를 키워 나가는 가슴 뿌듯해지도록 곳곳한 윤리적 인간상을 그려주던 연설의 마지막 자락에서 헉슬리는 광막한 우주로부터 두려움을 느끼는 듯 한 어두운 단상을 내비친다. 소년이 타고 올라가 보았던 엄청난 하늘 위 공의 세계, 지상의 공 놀기와는 전혀 다른 이상한 세계도 결국은 수명을 다하고 시들어가게 된다. 마찬가지로, 진화해 온 인간의 문명도 결국 극성기를 지나면 시들어가기 시작할 것이다. 하늘 위로 뻗어 오른 공 놀기가 만들어 낸 씨앗이 다시 하늘 위를 덮는 거대한 공이 되기 위해서는 지상에서의 성장과정을 또다시 거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문명사회 역시 원숭이 시절, 호랑이 시절을 다시 겪게 될 것이다. 우주와 싸우며 만든 인간의 문명이 우주의 법칙을 벗어날 수는 없다. 문명사회는 언젠가 다시 투쟁과 우승열패의 세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인간의 힘과 지능이 우주의 순환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¹²⁾

9) “Evolution and Ethics,” pp. 79-80.

10) “Evolution and Ethics,” p. 81.

11) “Evolution and Ethics,” pp. 82-83.

12) “Evolution and Ethics,” p. 85.

2. 강연에 대한 20세기 학자들의 독해와 “서문”

강연을 통하여 헉슬리는 만사를 과학을 통해 살필 것을 강조해 온 이전의 시각을 크게 바꾼 듯 보였다. 다윈의 진화이론을 접하는 순간 “내 다윈의 불독이 되겠노라”고 다짐했다는 헉슬리였다.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차마 꺼내지 못했던 인간의 기원에 관한 논의를 다윈의 □인간의 유래□가 출판되기 8년 전인 1863년에 도발적인 식인종 사회의 삽화를 곁들여 출판하여 가까운 친구들조차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헉슬리였다.¹³⁾ 과학과 과학적인 지식관 특히 진화론이 모든 인간의 지식은 물론 사회, 정치, 종교, 문학에까지도 스며들어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헉슬리였다. 그런데 이제 이 연설에서 그는 인간의 사회에서 진보란 자연 상태의 진보와는 다른 것이라고, 아니 자연 상태의 과정과 거슬러 싸워가며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또 한편 인간의 윤리의식이 당연히 자연의 일부이며, 투쟁, 갈등과 그리고 아마도 자연선택의 결과라고 덧붙이고 있었다. 사실 헉슬리는 그 때까지 생물 종의 진화를 설파하면서도 진화의 기제로서의 자연선택 이론은 받아들이지 않는 듯 한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런데 이제 인간의 문명은 자연의 진화에 거슬러 싸워가며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또 동시에 그간 확인할 수 없는 가설로 치부해 오던 자연선택 이론을 운명처럼, 아니 우주의 법칙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세기의 역사학자들은 “진화와 윤리”를 논하면서 윤리가 궁극적으로는 진화의 결과라고 말하는 헉슬리, 특히 자연선택을 부각시키는 헉슬리의 태도를 주의깊이 살피지 않았다. 역사학자들의 눈은 인간과 문명의 진화를 당연히 자연 진화의 일부로 보아야했을 헉슬리가 만년에 갑자기 인간의 문명과 자연 즉 윤리와 진화를 분리해 내면서 사실의 문제와 당위의 문제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에 고착되어 있었다. 역사학자들은 헉슬리의 “진화와 윤리”가 매우 복잡한 복선이 깔려있는 글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헉슬리는 예리한 분석과 날카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13) Thomas H. Huxley, *Evidence as to Man's Place in Nature* (London: William and Norgate, 1863).

논변가로도 잘 알려져 있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상당한 고전적 지식을 동원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은유를 현란하게 구사하곤 했다. 이 강연이 우아한 셀던 극장에서 옥스퍼드의 엘리트 계층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유독 현란한 은유를 사용하고 동서양의 고전을 동원했던 것이 아니었다. 이십여 년 간행했던 수많은 대중강연에서 그는 강렬하고 직선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적인 해석을 암시하거나, 논리적인 역설을 연상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곤 했다. 무엇보다도 헉슬리 자신이 “진화와 윤리”를 외견상 정치적인 의도를 감추는 듯한, 그러나 그 메시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달걀 춤”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설을 통하여 헉슬리가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는가에 대한 분석은 거의 없었다.

헉슬리의 “진화와 윤리”를 사실을 다루는 과학과 당위를 다루는 윤리학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일종의 선언문으로 해석하는 시각은 그의 강연 당시에도 없지는 않았다.¹⁴⁾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대체로 20세기 내내 출판된 여러 권의 헉슬리 전기를 통해서 확립되어 갔다.¹⁵⁾ 그리고 학자들은 물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읽힌 힘멜팍(Gertrude Himmelfarb)과 같은 무게 있는 역사학자들의 해석을 통해서 굳어져갔다. 일반적인 “진화와 윤리” 독해의 전형을 잘 보여주는 힘멜팍의 견해에 의하면 헉슬리는 오랫동안 진화와 윤리를 동일한 영역으로 간주했었다. 따라서 헉슬리의 “진화와 윤리”는 그가 태도를 바꾸면서 “과학을 이방인들의 분야인 사회와 도덕의 영역으로 침투시키려는 시도들을 공격적으로 비판하는” 강연이었다.¹⁶⁾ 바르준(Jacques Barzun) 역시 헉슬리의 “진화와 윤리”로부터 헉슬리의 경력 초반과는 크게 다른 헉슬리의 모습을

14) St George Mivart, “Evolution in Professor Huxley,” *Nineteenth Century* 34 (1893), pp. 198-211.

15) 대표적인 초기의 전기만 해도 Houston Peterson, *T. H. Huxley: Prophet of Science* (New York: Longman, Green, 1932), Cyril Bibby, *T. H. Huxley: Scientist, Humanist, Educator* (London: Watts, 1959), 그리고 William Irvine, *Thomas Henry Huxley* (London: British Council and National Book League, 1960)을 들 수 있다.

16) Gertrude Himmelfarb, *Darwin and the Darwinian Revolution* (New York: W. W. Norton, 1959), p. 407. 이러한 해석을 염두에 두고 세네카의 글을 빌린 “진화와 윤리” 강연 원고 모두(冒頭)의 명구(銘句)를 살펴보자. 묘한 아이러니를 더해준다. “나는 이방인들의 성채를 지나다니곤 한다. 그저 그곳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더듬어 조사하고 다닌다.” “Evolution and Ethics,” p. [46]: “Soleo enim et in aliena castra transire, non tanquam transfuga sed tanquam explorator.”

읽었다. 다만 헉슬리의 태도가 변한 모습을 좀 더 일반적인 사회분위기 속에 위치시킨다. “진화와 윤리”가 발표되던 옥스퍼드는 사실상 헉슬리가 30여년 전 월버포스 주교와 맞부딪혔던 영국 과학진흥회의 모임이 있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하지만, 그 30여년 사이에 진화와 윤리를 보는 이곳 사람들의 눈은 크게 달라졌다. 30여년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진화 이론을 사회에 적용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했었지만, 1893년에는 이미 그런 생각은 “형편없는 농담”으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바르준에게 헉슬리의 강연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선언문이라기보다는 지식인 세계를 뒤덮고 있던 세기말의 어두운 사회, 정치상에서 돌파구를 모색하는 몸부림으로 보였다.¹⁷⁾

한편, 20세기 중반에 들어 집단유전학으로 무장하고 새로운 “진화를 통한 종합 (Evolutionary Synthesis)”을 표방하고 나서던 생물학자들은 헉슬리의 선언을 “시기상조(premature)”였던 사건으로 여겼다. 당시의 생물학자들이 보기에 “진화와 윤리”가 발표되던 시기의 진화이론이란 진정한 진화과정을 보여주는 진화론이 못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불완전한 진화 이론을 염두에 두고 진화와 윤리를 구분하는 헉슬리의 판정은 불만스러운 사건이었다. 심프슨 (George Gaylord Simpson, 1902-1984)은 헉슬리가 당시의 미숙한 과학지식 때문에 두 가지 근거 없는 가정을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보았다. 우선 헉슬리는 이 세상 즉 진화과정이 본질적으로 비윤리적이라고 보았는데, 심프슨 시대의 학자들은 윤리적인 태도가 자연 속에서 진화되어 갈 수 있음을 잘 알게 되었다. 다음으로, 심프슨은 헉슬리가 인간의 윤리의식이 진화와 별도로 직관적으로 생겨난다고 가정했다고 보았다. 윤리의식의 “기원과 가치에 대한 논의 없이” 칸트류의 직관윤리를 가정했다는 것이다. 심프슨은 윤리의식 역시 진화과정의 결과라는 헉슬리의 글을 읽지 않은 듯 이야기하고 있다.¹⁸⁾ 그렇다고 해서 심프슨이 진화이론으로부터 도덕률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옳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인간사의 판단을 진화이론으로부터 구하는 행위는 인간의 의지를 방기하고, 무엇보다도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새로운 진화이론에 따르면, 윤리적 판단은 진화 과정에서 인간이 나타나면서 새로이 생겨난 현상이다. 따라서 윤리란 인간에 관한

17) Jacques Barzun, *Darwin Marx Wagner: Critique of Heritage, Second Edition with a new Prefac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1958), pp. [101]-103. 이 책의 초판은 1941년에 출판되었다.

18) George Gaylord Simpson, *The Meaning of Evolution, Revised Edition*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7), pp. 299-301. 초판은 1948년에 출판되었다.

논의임을 망각하고 인간 이전 동물세계의 진화 과정에 기대는 윤리론은 잘못된 윤리론일 수밖에 없다. 신에 기대는 윤리, 직관에 기대는 윤리와 마찬가지로, 진화에 기대는 윤리 역시 윤리 바깥에서 기준을 찾으면서 인간의 선택이라는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이다.¹⁹⁾

후대의 독자들과는 달리 강연의 참석자들 그리고 강연 원고를 읽은 당시의 독자들은 대체로 강연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눈치 채고 이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인 헨리에타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윤리의식이란 우주의 과정이 만들어 낸 산물이면서 또한 우주의 과정과 싸워나가는 과정이라는 역설은 여전히 논리적인 모순처럼 느껴졌다. 다음해 1894년 자신의 글들을 모아 전집을 출판하면서 헉슬리는 마지막 권에 실릴 “진화와 윤리”의 앞쪽에 강연의 의도를 좀 더 직설적으로 설명하는 서문을 실는다. 1892년에 시작된 로마니즈 강연은 첫 연사로 글래드스톤을 초청하면서 정치나 종교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두 번째 해에 강연을 하게 된 헉슬리가 당시의 정치적인 문제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고 있던 로마니즈는 두 차례나 헉슬리에게 강연의 성격이 정치적인 또는 종교적인 주제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 진화와 윤리라는 제목으로 다루지 않기로 약속한 정치적인 주제를 다루기 위해 헉슬리 자신은 고심해 가며 “달걀 춤”을 추듯이 곡예를 했지만, 자신의 강연이 지니는 정치적 함의를 파악하지 못한 청중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로마니즈의 청 때문에 너무 완곡하게 표현했던 그의 정치적인 의도를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쓴 서문이었다.²⁰⁾

그의 서문 역시 식물을 주제로 한 우화로 시작된다. 그의 서재 창가에서 내려다보이는 정원은 원래 우주의 과정에 따르는 자연 상태의 모습이었다. 헉슬리가 정원을 가꾸기 전까지 그곳을 덮고 있던 식생은 거의 2 천년 전 로마군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2 만년이나 3 만년 전 식생과 비교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 식생은 우주 과정의 결과였을 것이니, 한 그루 한 그루의 식물들이 모든 다른 식물들과의 투쟁의 결과였을 것이다. 그리고 매 시기마다의 환경 조건에 가장 잘 적응한 적자들이 선택되어 살아남았을 것이다.²¹⁾

19) Simpson, *The Meaning of Evolution*, pp. 308-309.

20) “Evolution and Ethics”와 “Prolegomena”의 “Preface” in *Collected Essays*, vol 9, pp. [v]-ix. “달걀 춤”이야기는 p. vi에서 읽을 수 있다.

21) “Prolegomena,” p. 4. 자연선택을 인정하는 논의는 8쪽까지 이어진다.

수년 전 헉슬리는 이 원생지를 정원으로 만들며 생소한 식물들을 외부로부터 들여와 일종의 “식민지”를 만들었다. 이 정원은 주변의 자연 상태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하지만 이 정원을 만드는 과정도 “엄밀히 말하면 우주 과정의 일부”다. 헉슬리 자신이 지난 삼 십여 년 동안 역설해 온 것이 바로 인간의 신체, 지능, 도덕 등 역시 자연 상태의 잡초만큼이나 우주과정의 일부라는 사실이었다.²²⁾ 인간의 기예를 통해 만들어진 모든 것이 그러하듯 정원 역시 인간의 에너지와 지능을 통한 우주과정의 산물이다. 하지만 기예의 산물이란 또 한 편 인간 자신의 에너지와 지능을 만든 우주과정의 힘에 반하여 만들어진 작품이기도 하다. 우리가 기예의 산물 또는 인공물이라 칭할 때, 우리는 자연의 과정이 만들어 내는 산물이 아닌 어떤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 우주과정의 결과로 만들어진 인간의 윤리의식이 우주과정과 대항하여 싸우는 과정이라는 주장이 논리적인 모순처럼 들린다고 사람들은 수군거린다. 하지만 사실이 그러하니 어찌하랴.²³⁾

헉슬리는 인간의 윤리가 진화의 결과임을 거듭 분명히 한다. 인간 기예의 산물, 즉 정원이란 우주과정에 비해 매우 취약한 구조물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지질학상의 빙하기가 돌아온다면, 아무리 유능한 정원사라도 헉슬리의 정원에서 사과나무를 키울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현재의 조건 아래서 정원사의 의도와 기술은 자연 상태에서의 생존경쟁만큼이나 정원 식물의 생존에 작용하는 힘이다. 이어서 헉슬리는 영국제국의 식민지 관리를 자신의 정원 관리와 비교한다. 식민지란 자연 상태의 결과 즉 경쟁과 투쟁을 통해 얻은 지역이다. 하지만 식민지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조직들, 정당, 군인, 정착민들이 여전히 자연 상태를 유지한다면, 즉 서로 투쟁을 계속한다면 그 식민지는 유지될 수 없다. 정원을 위해 정원사가 필요하듯이, 식민지의 통치를 위해서는 식민지 내의 투쟁을 다스릴 “관리를 위한 권위”가 필요할 것이었다.²⁴⁾

인간 사회의 관리는 과연 가능한 일일까? 에덴동산에도 뱀이 있었듯이, 인간의 사회가 더 윤리적으로 관리될수록, 인간 사회를 잠식하는 자연의 파괴력은 강해진다. 잘 관리된 식민지는 곧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와 한정된 자원으로 인한, 즉 자연의 힘으로 인한 쇠퇴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완벽한 관리란 허망한 꿈일지도 모른다.²⁵⁾

22) “Prolegomena,” p. 11.

23) “Prolegomena,” p. 12.

24) “Prolegomena,” pp. 16-17.

25) “Prolegomena,” pp. 18-20.

더구나 정원의 꽃과 잡초를 구별하는 일과는 달라서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들 중 좋은 시민과 나쁜 시민을 구별해 내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²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정치나 영구히 유지되는 정원이 불가능한 꿈이라 하더라도 정원사가 모든 잡초와 잎을 깎는 달팽이들 그리고 씨앗을 쪼는 새들을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는 일이다.²⁷⁾ 이 당연해 보이는 비유가 인간의 사회를 위한 관리에 어떤 시사점을 던져줄까?

무엇보다도 먼저, 한 사회가 그 구성원들 사이의 경쟁을 통해서 진보할 수 있다는 진화론에 기대는 믿음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인간의 양심과 도덕 감정은 진화의 결과이겠지만, 그 양심과 도덕 감정을 통해 만든 인간의 문명은 그 양심과 도덕 감정을 만든 생존을 위한 투쟁이 자연선택의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 300년 전 엘리자베스 시대로부터 당시 빅토리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영국인들이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도태되었을까? 2 퍼센트? 5 퍼센트? 아마도 극소수일 것이다. 이제 인간 사회에서의 생존경쟁은 그 사회 구성의 변화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²⁸⁾ 영향을 미친다면, 그 힘은 개인 사이의 투쟁을 통하여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들 사이의 군사적, 그리고 산업상의 싸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작동한다. 사람들은 아직도 인간 사회에서의 생존을 위한 투쟁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날 생존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 투쟁한다. 현대사회에서 적자로 그 수가 늘어가는 자들은 훌륭한 재능을 가진 소수가 아니라 적당한 재능을 갖춘 보통 사람들이다.²⁹⁾

서문의 마지막 절에서 헉슬리는 다시 한 번 인간의 문명과 정원의 유비를 분명히 한다. 정원사가 원하는 꽃과 나무를 선택하는 행위는 자연선택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는다. 정원이 결국 폐허로 돌아갈 것은 분명하다. 인간의 문명 역시 인간이 가꾼 퍼포먼스의 결과이다. 아무리 공들여 관리해도, 우리의 후손은 번식욕과 자기주장을 내세우는 본능이라는 “원죄”를 안고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오랜 기간 자신의 덕성을 함양하고 진보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하지만 인간 사회에는 “밖으로부터 그리고 안으로부터” 그 사회와 구성원들을

26) “Prolegomena,” pp. 22-23.

27) “Prolegomena,” pp. 32-33.

28) “Prolegomena,” pp. 38-39.

29) “Prolegomena,” pp. 40-42.

위한 윤리와는 다른 방향을 향하는 “우주의 힘”이 작동하고 있다.³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값진 문명을 개발하고 진보를 추구하는 과정은 “조직적인 정치체제라는 인공물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려는” 부단한 노력의 여정이다.³¹⁾

강연 원고에 비해서 이 서문이 헉슬리의 의도를 좀 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가? 당시의 독자들은 분명 그렇게 읽었고, 그의 강연에 대한 부산한 논평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의 독자들은 대부분 그의 강연을 각자 자신의 관심 틀 안에서만 읽어왔다. 헉슬리의 강연을 주로 진화와 윤리를 구분하는 주장으로 읽기 시작한 가장 큰 요인은 무엇보다도 20세기 전반에 강력하게 등장하기 시작한 사회과학 각 분야의 등장이었다. 사회학, 심리학, 언어학, 논리학 등 사회과학 및 여러 인문학 분야가 특히 미국의 대학에서 각기 한 학문분과로 자리 잡으면서, 인간 사회, 인간 심리, 그리고 언어는 인간에 대한 자연과학적 연구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지식과는 구분되는 독자적 영역이 있음이 강조되기 시작했다.³²⁾ 그 과정에서 19세기의 대표적인 과학자였던 헉슬리가 진화와 윤리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논의는 너무도 매력적인 참고자료였다. 1903년 조지 무어가 “자연주의의 오류(Naturalistic fallacy)”라는 용어를 만들어 쓰면서 사실과 당위 사이의 구별에 대한 서양 지성사의 오랜 전통을 분명히 해 주었는데,³³⁾ 윤리학자, 철학자들의 눈에는 헉슬리가 당대의 과학자로서 무어보다 10년 전에 이미 그 문제를 요령 있게 설명해 주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헉슬리의 “진화와 윤리”가 서양 지성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되고 있다. 이 강연을 통하여 헉슬리는 스펜서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만연해 있던 사회다윈주의를 부정했다. 과학혁명 이후 사실과 당위 사이의 논쟁에 있어 자연주의의 오류라는 개념을 확립하는 초석을 놓았다. 과학적 세계관이 인간사로 확장되어 가는 ‘근대화’의 흐름을 거슬러 휴머니즘을 강조했다.³⁴⁾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독해가

30) “Prolegomena,” pp. 43-44.

31) “Prolegomena,” pp. 44-45. 그런데, 이어지는 마지막 문장을 헉슬리는 이러한 부단한 노력이 물론 한계가 있다는 단서로 끝맺는다.

32) Hamilton Cravens, *Triumph of Evolution: American Scientists and the Heredity-Environment Controversy, 1900-1941*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78).

33) George Edward Moore, *Principia Ethic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03).

34) James Paradis and George Williams, *Evolution and Ethics: T. H. Huxley's “Evolution*

가능함을 전제하고서도, “진화와 윤리”의 긴 강연원고의 형식, 톤, 사용되고 있는 비유, 그리고 진화와 윤리와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이외의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진화와 윤리”라는 텍스트가 상당히 두터운 맥락들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적진을 탐색하는 자신을 표현하는 듯한 연설 첫머리의 명문을 새겨 넣으면서 헉슬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불교와 힌두교, 시 구절들, 그리고 각주에 등장하는 사상가들을 통해 그가 말하려 했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헉슬리는 자연에 순응하라고 말하는 스토아 철학자들을 진화에 순응하라고 주장하는 진화 윤리학자들과 나란히 놓고 함께 부정하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이들을 “우주의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 선지자들로 여기는 듯싶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스치는 듯 이야기되는 개인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한 부정에 그 강연의 핵심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자신이 이야기하듯이, 헉슬리는 만년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사회가 자연의 일부이며 또 자연의 산물임을 강조했다. 왜 그가 하필이면 1890년대에 “진화와 윤리”를 통하여, 사회는 자연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또한 자연으로부터 보호받아야할 대상이라고 말하기 시작하였을까? 1880년대의 영국은 악화되어 가는 경제, 높아 가는 실업,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한 생활에 대한 각성 등으로 사회주의적인 이상에 기댄 노동운동 및 사회개혁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헉슬리의 “진화와 윤리”는 이러한 1880년대 영국의 사회 정치적 배경 아래에서 헉슬리의 정치적 입장이 표명된 텍스트였다. 그리고 “과학과 윤리”에서 우리는 1880년대에 이제는 제도적으로 안정된 과학지식인이 된 헉슬리가 갑자기 부상하는 노동운동가들과 부딪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변환시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³⁵⁾

3. 안으로부터의 위협: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and Ethics” with New Essays on Its Victorian and Sociobiological Contex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Introduction.”

35) 예를 들어 19세기 영국의 제국주의, 신사사회, 교육제도, 노동운동, 경제 불황 등을 다루고 있는 이영석의 □역사가가 그린 근대의 풍경□(푸른역사, 2003)의 내용 속에서 헉슬리의 연설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헉슬리는 1850년대부터 노동자들의 교육이나 사회 정책 등에 대해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과학적인 근거아래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중재자로서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아니 단순히 한 사회인으로서 의견을 개진했다기보다는, 19세기 중반 부상하고 있던 과학자들이 독자적인 집단을 형성해 나가면서 자신들의 위상을 확립해 나갔던 의식적인 움직임의 중심에 헉슬리가 있었다. 과학과 종교에 관하여, 과학과 교양교육에 관하여, 과학과 문화에 관하여, 과학과 기술교육에 관하여 그리고 과학과 노동 및 정치에 관하여 그가 발표한 수많은 글들을 통하여 그는 과학이 이들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제언을 해 줄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영역임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과학과 과학자의 위상을 확고한 것으로 만들어 갔다.³⁶⁾

그렇다면 과학이 사회에 대해서 특히 진화가 윤리에 대해서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주장은 과학이 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근거를 약화시키는 행위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헉슬리는 여전히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기획 즉 영국을 중앙집권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를 지닌 자유주의자들의 관리아래 두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³⁷⁾ 헉슬리는 우생주의자들, 무정부주의자들 그리고 구세군 등의 급진적인 개혁의제를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들이 나름대로의 사회개혁 의제의 근거로 각자의 “과학적인 근거”들을 들고 나서면서 헉슬리와 마찬가지로 사회문제에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했다.³⁸⁾

이제 1890년경에 헉슬리는 눈에 띄는 제도권의 학자가 되어있었다. 즉 인정받는 영국사회의 중심 엘리트가 되어 있었다. “진화와 윤리”를 통하여 헉슬리는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나 알프레드 러셀 월리스(Alfred Russel Wallace, 1823-1923) 류의 사회주의적 성향의 사회개혁가들이 진화 이론을 그들의 사회개혁 기획에 이용하는 것을 막으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경쟁을 통한 진보라는 새로운 사회진화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었다.³⁹⁾

36) Paul White, *Thomas Huxley*, ch. 3, “Science as Culture”를 보라.

37) Michael S. Helfand, “T. H. Huxley’s ‘Evolution and Ethics,’” *The Politics of Evolution and the Evolution of Politics*, *Victorian Studies* 20 (1977), pp. 159-177, in p. 161.

38) Paul White, *Thomas Huxley*, ch. 5, “‘Darkest England’: Science and Labor in the 1880s and 1890s.”

39) Martin Fichman, “Biology and Politics: Defining the Boundaries,” Bernard Lightman ed., *Victorian Science in Contex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7), pp.

사회 계층간의 권력 다툼 속에서 역사를 읽는 시각에 의하면, 중산층의 이익과 입장을 대변하는 헉슬리의 태도 변화는 너무도 당연해 보인다.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논의가 생기면 헉슬리는 일관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여타의 사회 엘리트계급 또는 중간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당시 영국사회의 현상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그의 논의를 이끌었다.⁴⁰⁾ 사실 19세기 중반을 거치면서 영국사회에 과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 가는 변화는 헉슬리를 중심으로 한 영국 과학자들이 다른 문화적인 지배층과 협상을 통해 협력을 얻어 냄으로써 가능했다. 예를 들어 종교적인 교의와 종교적 세계관에 대한 그 매섭게 적대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헉슬리는 자유주의적 종교계 인사들과 친분을 유지했다. 그는 심지어 종교가 초 중등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과학의 문화적 권위란 이러한 협상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었다.⁴¹⁾ 과학지식인이란 편협한 전문인이 아님을 애써 주장하면서도, 헉슬리는 영국이 경제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위상을 계속 높여가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능력과 함께 엘리트 전문과학인 및 기술자들의 안목에 의존해야한다고 주장하곤 했다.⁴²⁾ “진화와 윤리” 이전에도 이미 과학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헉슬리의 입장은 이미 “달걀 춤”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헉슬리는 노동자들의 영웅이었다. 그는 노동자층의 교육을 강화하고 권익을 신장할 것을 강조해 왔었다. 헉슬리는 노동자들에게 과학적 정신이란 종교나 문학은 물론 일상적인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관건임을 설파하면서 과학의 위상을 높여나갈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노동자들은 엄청난 수의 집단으로 커졌다. 몇 차례의 선거법 개정을 거치면서 그들 중 대다수가 이제는 투표를 통해 정치적 힘을 행사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이제 대중매체에 글을 쓰면서 학자나 문인들과 나란히 토론에 참여하며 논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노동자들이,

94-118.

40) Evellen Richards, “Huxley and Woman's Place in Science: The ‘Woman Question’ and the Control of Victorian Anthropology,” James R. Moore ed., *History, Humanity and Evolution: Essays for John C. Green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pp. 253-284.

41) Paul White, *Thomas Huxley*, ch. 4, “The Worship of Science.”

42) Frank M. Turner, *Contesting Cultural Authority: Essays in Victorian Intellectual Lif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p. 206.

그리고 이들과 손잡고 사회개혁을 추구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과학의 권위를 이용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누구보다도 정열적으로 세습재산은 물론 지나친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통해 성립된 영국사회의 위계를 공격한 사람은 오랜 동료 진화론자인 월리스였다. 월리스는 누구보다도 정교하게 과학과 진화론을 동원하여 자신의 인간관, 정치관, 사회관을 부추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월리스에 의하면 세습적인 부와 권력, 그리고 특히 토지 소유권은 인간 사회에서의 자유롭고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며, 결국 최선의 사회를 향한 진보를 저해하게 될 것이었다. 우수한 사람들이 선택되어 살아남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토지를 국유화해야한다고 월리스는 주장했다.⁴³⁾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헉슬리의 경멸은 생애 후반에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1860년대 말, 실증주의가 많은 영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시절, 헉슬리는 콩트의 실증주의를 “그리스도가 배제된 가톨릭”이라고 표현했다. 신을 버리고도 종교에 대한 갈증을 간직한 사상이라는 것이었다. 생시몽 류의 사회주의에 관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지니고 있었는데, 종교적인 색채를 버리지 못한 지나치게 소박한 사상체계라는 것이었다.

⁴⁴⁾ 하지만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을 영국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시각은 추상적인 이론을 통해 연역된 결론은 아니었다. 사실 헉슬리의 “진화와 윤리”는 그가 구세군의 창시자 부스(William Booth, 1829-1912)와 벌였던 1880년대 초반의 논쟁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씌어진 것으로 보인다. 1860년대에 시작된 부스의 구세군은 주로 도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군사조직과 같은 엄격한 위계 속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평등주의가 강조되는 독특한 교파로 성장해 나갔다. 1880년대 부두노동자들의 파업과 같은 노동분쟁의 와중에 구세군은 빅토리아 시대 기득권층의 정치적 지적 권위에 도전하는 사회주의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부스의 □어두운 영국 그리고 탈출로□는 영국 빈민들의 절망적인 삶을 그리고 있으며 또 이로부터의 탈출방법으로

43) Alfred R. Wallace, *Land Nationalization: Its Necessity and its Aims: Being a Comparison of the System of Landlord and Tenant with that of Occupying Ownership in their Influence on the Well-being of the People* (London: Trübner and Co., 1882).

44) Desmond, *Huxley*, pp. 372-374.

공동생산이나 공동농장과 같은 사회주의적 제도를 제시하고 있었다.⁴⁵⁾ 그리고 이들 노동 운동가들과 사회주의자들은 정당을 결성하여 힘을 결집시켜 나가면서, 사회의 질서와 위계를 역설하는 헉슬리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생애 후반에 그에게 다가온 사회주의는 좀 더 구체적인 위협이었다. 1867년의 선거법 개정으로 대부분의 도시노동자들은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은 19세기 중반 내내 이어진 헉슬리와 같은 자유주의자들의 노력과 새뮤얼 스마일즈(Samuel Smiles, 1812-1904)류의 자조(Self-help)운동, 그리고 경제적인 붐을 타고 독자적인 개혁의지와 학습능력을 갖춘 준 지식인이 되어있었다. 노동자들의 수도 크게 늘었지만, 노동자 학교 등을 통해 자연과학은 물론 사회와 철학 등의 주제를 공부하는 노동자, 기계공들의 수는 급격히 늘었다. 이들은 이제 스펜서의 진화이론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기도 하고, 헉슬리의 주장에 반격을 가하기도 했다. 아마도 윌리엄 부스의 중요한 글 대부분을 대필한 것으로 생각되는 □폴 몰 신문(*Pall Mall Gazette*)□의 편집인 윌리엄 스테드(William Stead, 1849-1912)는 위계적 사회질서를 신성시하는 헉슬리와 같은 과학지식인들의 문화적 권위에 의문을 제기해 오고 있었다. “헉슬리 교수에게 정색하고 묻겠다. 과학과 산업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과학과 산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⁴⁶⁾ 당시 이미 노동조합의 리더였던 벤저민 틸렛(Benjamin Tillett, 1860-1943)은 헉슬리를 권력층의 허수아비로 매도했다. “헉슬리 교수는 실험실과 원형질에나 신경을 써라. 부스가 인간을 위한 종교를 곧추세우기 위해 거친 전투를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라.”⁴⁷⁾ 하지만 헉슬리는 이들 사회주의자들과 과격한 노동운동가들이 영국 사회를 안으로부터 위협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 자신 1886년 2월 런던 중심부를 휩쓴 파업과 데모로 시작된 폭동의 와중에 휩쓸리면서 사회주의의 어두운 힘을 감지하기도 했다. 그런데 애니 베전트(Annie Besant, 1847-1933)나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 1856-1950)와 같은 사회주의자들은 “나는 진화를 믿는다. 고로 나는 사회주의자가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다.⁴⁸⁾ “진화와 윤리”는 이들이

45) William Booth, *In Darkest England and the Way Out* (London: William Burgess, 1890).

46) *Pall Mall Gazette*, 15 January 1887.

47) *Times*, 27 December 1890.

48) Annie Besant, “Why I am a Socialist,” *A Selection of the Social and Political Pamphlets* (New York: Kelly, 1970), pp. 2-3.

과학인들과 똑같이 아니 훨씬 더 강렬한 언어로 진화를 도구로 이용하며 자신들의 정치적인 담론을 만들어 가는 것을 차단하는 정치적 연설이었던 것이다.

4. 밖으로부터의 위협: 제국의 각축

“서론”을 통해 좀 더 분명히 드러나는 내용은 그의 제국주의자로서의 면모다. 노동자들의 소요와 월리스 류의 사회주의가 영국 사회를 안으로부터 위협하고 있다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스펜서 류의 안이한 자유주의는 제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밖으로부터 위협에 영국 사회를 노출시키고 있다고 헉슬리는 생각했다. 제국 관리 헉슬리의 모습이 분명해지는 사건은 무엇보다도 런던 교육위원회 위원 시절의 경험이었다. 영국의 과학 그리고 교육일반이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 뒤쳐져 있으며 그 개혁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183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사실상 그 개선을 위한 초등 및 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었다. 제국열강의 치열한 식민지 쟁탈전이 가속화하기 시작할 무렵, 영국인들은 산업과 기술에 있어 영국의 절대적인 우위가 흔들리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다. 1851년의 런던 박람회는 수정궁이라는 기적의 건축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으며, 1862년의 런던 산업박람회는 훨씬 더 다양한 발명품, 기발한 전시물, 경이로운 기술들이 엄청난 규모의 전시장에서 전시되어 세계인들의 발길을 끌었다. 그런데 불과 5년 후 1867년의 파리 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영국인들은 자신의 산업기술상의 우위가 계속되지는 못하리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초등 및 중등 교육을 국가가 지원, 통제하며 주도해야한다는 공감대가 급속히 영국 사회 전반에 번졌고, 1870년 의회는 초등학교들을 세우고 감독할 교육위원회를 결성하기 위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오랫동안 광산학교에서 교육과 교육에서의 과학의 위치를 제고시키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헉슬리는 교육위원회 출마하여 선출된다.⁴⁹⁾

49) 물론 이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서술이다. 1830년대부터 영국정부는 일부 사립학교에 재정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파리 박람회 이전인 1864년의 클래런드 보고서는 이미 공교육이 필요함을 그리고 과학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제 2차 보고서인 톤튼 보고서가 작성되던 1871년에는 이미 수많은 초등학교를 신설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안이

역사학자들은 1870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영국 정부의 공교육 제도가 매우 늦은 것으로 보아왔다. 독일어를 사용하는 여러 지역에서는 이미 18세기부터 소 정부 주도의 초, 중등 공교육의 흔적이 나타나며, 프랑스 역시 혁명 후 19세기 초반 상당한 공교육 기관들이 들어섰다는 것이다. 구체제의 토목학교나 공병학교는 이미 18세기 중반이면 정립된 국가 주도의 교육기관이었다. 그러나 어느 지역도 1870년대 영국에서와 같이 수년 사이에 정부와 교육 사이의 관계, 교육제도와 종교제도 사이의 관계, 그리고 교육 내용 등에 관한 정부차원의 법률, 제도 및 원칙 등을 확립하면서 그 후 공교육의 형성과 성격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초 중등 교육을 국가가 관장해야한다는 철학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그 역사적인 사건의 핵심에는 런던 교육위원회가 있었다. 그리고 런던 교육위원회를 마치 한 사람이 끌어나가는 듯이 보이게 만들었을 만큼 주도적으로 이끈 사람이 헉슬리였다. 1871년 교육위원 선거 당시 헉슬리는 “과학계를 대표하는 후보”로 알려져 있었으며, 사회 각층의 인사들이 교육위원이 되기를 희망했다. 49명의 선출 위원들 중 교육에 경험이 있었던 종교계 인사가 11명, 현직 국회의원 5명이었다. 노동자들을 대표하겠다고 나선 인사들이 많았는데, 단 한사람도 선출되지 않았다.⁵⁰⁾

교육위원으로 초 중등 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면서 그리고 과학을 교과과정에 포함시켜야하는 이유를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는 영국사회에서 훌륭히 자리 잡은 안정된 제국의 관리자로서의 면모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는 자연에는 질서와 위계가 존재하며 이 사회의 질서와 위계는 자연스러운 것임을 과학이 아동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가적 교육제도란 능력을 지닌 아동들이 가장 열악한 환경의 초등교육기관으로부터 자신의 힘으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제도여야 할 것이었다.⁵¹⁾ 헉슬리는 성경을 통한 “도덕과 종교”의 교육이 공교육의 핵심이 되어야한다는 교육기획 소위의 보고서에 동의했다. 영국 공교육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교육위원으로 일하며 헉슬리는 이미 그가 광산학교에서 과학과목을 교과과정에 포함시키려 애쓸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과학의 유용성에 관한 그의 시각

통과되어 있던 상태였다.

50) David Layton, *Science for the People: The Origins of the School Science Curriculum in England* (London: Allen and Unwin, 1973); White, *Huxley*, pp. 121-129.

51) 런던 교육위원회 교육기획분과에서의 헉슬리 연설에 관한 1871년 2월 9일 *The Times* 기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광산학교 교수로 과학과목을 대학의 교양과목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노력하던 헉슬리는 과학을 즉각적인 실용성이나 산업상의 도구로 바라보는 시각을 완곡히 거부했다. 과학의 효용은 좀 더 심원한, 문학과 같은 고급문화로서의 기능에 있다고 그는 주장했었다. 그런데, 과학교육의 역할이 아동들로 하여금 사회의 질서와 위계를 깨닫게 해 주는 것이라 정의함으로써, 그는 과학이 고급문화라기보다는 사회와 제국의 도구임을 말하고 있었다. 더구나 교육위원회가 가동되기 전부터 많은 학교들이 과학교육을 실시하고 있었고, 이들 대부분의 과학교육이 상업 및 산업상의 필요성 때문에 실시되고 있다는 교육기획 본과의 보고서를 헉슬리는 무시할 수 없었다.⁵²⁾ 그 바쁜 활동 가운데서도 1871년 헉슬리는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의 부속 “과학학교”를 독립된 “과학 사범학교”로 바꾸는데 성공한다. 이곳 학생들의 등록금은 직접 정부가 관리하게 되며, 교수들은 국가로부터 고정된 급여를 받게 될 것이었다. 헉슬리는 “생물학 교수”이자 학교의 학장으로 임명되었다. 런던 교육위원 시절 이후 헉슬리가 관여해 온 과학 기예국에서 작성된 학교의 전망에 대한 보고서는 이 학교에 입학할 학생들이 “미래의 과학교사들과 산업계의 관리자들”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학 사범학교는 제국의 미래를 짊어질 역군을 만드는 곳이었다.⁵³⁾

이어서 헉슬리는 수산국을 포함, 일곱 분야의 추밀원 자문위원으로 제국의 행정과 정치에 점점 더 깊숙이 관여하게 된다. 자문위원직은 무상이었지만, 세 개의 교수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교육위원으로 일하다가 탈진했던 헉슬리가 회복된 후 오랫동안 그를 제국의 행정에 잡아두고 있었다. 천연두를 위한 접종은 과연 안전한가? 인도의 농산물 소출을 늘리기 위한 방안은 없는가? 어떻게 하면 바다가재를 더 많이 잡아 올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드디어 1880년 말 내무장관 글래드스톤은 연봉 700파운드를 받을 수 있는 수산국 감독관직을 헉슬리에게 제의한다. 어류의 남획을 방지하고 하천의 오염을 감독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아일랜드의 경제가 악화되면서 지주들이 소작인들을 해고하게 되는데, 글래드스톤은 지주들로 하여금 보상금을 지불하게 하는 법령을 만드는데 실패한다. 수산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 어획고를 높이라는 압력을 받게 되며, 헉슬리는 많은 시간을 수산국에서 보내게 되고, 정치문제의 현실적인 측면을 직시하게

52) *First Report of the Scheme of Education Committee* (London, 1871), pp. 11-48.

53) *Prospectus of the Norman School of Science, and of the Royal School of Mines* (Science and Art Department, 1881), p. 5.

된다.

1887년 여왕의 즉위 50주년을 기념하며 영국 정부는 제국협회(Imperial Institute) 사업의 일환으로 식민사업을 진흥하고 박물관의 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한 전시를 시도한다. 그리고 헉슬리는 박물관과 부속 시설들을 빅토리아 시대를 상징하는 기념물로 표현하는 연설을 하게 되었다. 그 연설에서 헉슬리는 독일이나 미국과의 산업경쟁은 국제적인 전쟁이며, 그 패자는 굶주림을 견디어 내야할 것이라고 비장한 표현을 사용한다. 물론 그 전쟁은 현대전, 즉 “과학적 지식과 조직과 훈련의 전쟁”일 것이었다.⁵⁴⁾ 16년 전 과학 사범학교에 대한 청사진과 비교해 보면, 이제 자조와 교육을 통한 진보와 개선을 대신하여 전쟁과 투쟁의 메타포가 그의 연설을 지배하고 있었다. 헉슬리는 연이어 몇 통의 편지를 □타임즈□에 기고한다. 독일과 미국은 우리 영국으로부터 배운 기술과 저들의 풍성한 자원으로 우리를 압도하려하고 있다. 이들은 관세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며 영국에 도전하고 있다. “여러분 무기를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항복하시겠습니까? 기술교육은 영국의 ‘방위를 위한 전쟁세’이며, 제국협회는 우리 ‘산업계를 위한 정보국’입니다.”⁵⁵⁾ “진화와 윤리”는 이렇게 제국의 각축 속에서 영국 사회 밖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영국인들이 결속하여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한다는 메시지의 연속선상에 있었던 것이다.⁵⁶⁾

사회주의나 노동운동에 대한 그의 시각이 파업중의 폭도들을 목도하면서 훨씬 부정적으로 변해 갔듯이,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 비정한 우주의 과정에 대한 감수성 역시 예민해져 갔다. 제국협회를 위한 연설을 했던 그 해 1887년 11월 딸 마리안이 죽고 맨체스터의 기술교육 진흥을 위한 강연을 준비하고 있던 원고에서는 매정하고 비윤리적인 우주의 과정에 대한 헉슬리의 분노가 느껴진다. “여러분은 꽃과 나뭇잎 싱그러운 기억으로부터 평화로운 아름다움을 연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환상입니다. 매 순간 투쟁으로 인한 살육과 급작스러운 죽음이 이어지는 일상이 그 실제

54) Thomas Huxley, “Queen’s Jubilee,” *Pall Mall Gazette* 1887, Jan. 13.

55) 1887년 1월 20일, 2월 17일, 22일자 *Times*.

56) 엄복의 천연론을 읽으며 많은 동양의 독자들이 엄복이 진화에 관심을 보이면서 윤리는 거론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헉슬리의 의제는 윤리에 초점이 있었으리라고 전제하고 엄복의 정치적 의도를 읽는 것이다. 金鍾潤, “天演論 論析”을 보라. 그러나, 사실 엄복은 “진화와 윤리”가 지닌 정치적 의도를 정확히 재현해 보여준 셈이다.

모습입니다.”⁵⁷⁾ 분명 마리안의 죽음, 깊어 가는 경제적 불황, 그리고 격렬해 가는 제국의 각축으로부터 헉슬리는 차갑고 비정한 우주의 과정(cosmic process)을 느끼고 있었다. □타임즈□에 실린 그의 강연기사는 물론, 감성적인 내용을 정리해 버리고 다시 쓴 □나인틴쓰 센츄리□의 글에서도 강렬한 제국주의자 헉슬리의 모습과 함께 비정한 우주의 과정에 대한 체념의 시선이 느껴진다.⁵⁸⁾ “진화와 윤리”에 나타나는 비정한 자연에 대한 저항과 체념의 그림자에도 자식의 죽음을 지켜 본 가정의, 그리고 조국을 걱정하는 제국의 관리라는 헉슬리의 정체가 어려 있었다. 그의 강연이 전집으로 출판되는 사이에 틸들과 로마니즈도 급작스런 사고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5. 시대와 독자를 반영하는 “진화와 윤리”의 독해

헉슬리의 “진화와 윤리”에 대한 독해는 이를 읽는 독자 자신과 그 독자가 살아가던 시대를 보여준다. 헉슬리의 전기를 쓰면서, 이전의 역사학자들이 캐내지 못했던 헉슬리의 의학교육 과정과 당시의 교유 관계 등 젊은 시절의 삶을 새로이 찾아냈던 데즈먼드는 헉슬리 자신이 젊은 시절에 심취했던 낭만주의 문학의 인본주의적 취향을 “진화와 윤리”에서 읽을 수 있었다. 사회과학이 전문 분야로 확립되어 가던 20세기 초. 중반, 힘멜팍을 비롯한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진화와 윤리”에서 인간의 사회와 윤리를 생물학을 통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을 읽었다. 20세기 중반의 심프슨은 물론 20세기 후반, 그리고 현재의 생물학자들은 대체로 “진화와 윤리”를 읽으면서 헉슬리가 전제하고 있는 진화론이 자신의 진화론과 다르다는 사실에 집착했다.⁵⁹⁾

반면, 윤리학사를 추적해 가는 철학자들은 대체로 여전히 헉슬리가 “진화와 윤리”를 통하여 인간사회와 윤리를 동물계의 연속선상에서 보는 입장을 “극적으로” 벗어

57) Huxley, Draft of Manchester Address 1887, Huxley Paper 42.58-67, f.61, Desmond, *Huxley*, p. 558에서 인용.

58) Thomas Huxley, “The Struggle for Existence in Human Society,” *Nineteenth Century* 28 (1888), pp. 366-392.

59) George C. Williams, “Huxley’s Evolution and Ethics in Sociobiological Perspective,” *Zygon: Journal of Religion and Science* 23 (1988), pp. 303-407.

던졌다고 읽는다. 따라서 헉슬리는 사실의 영역과 당위의 영역을 구별한 흄의 후계자이며, 윤리적인 선이 자연학의 영역이 아님을 적시한 무어의 선구자이다. 헉슬리가 자신의 정치적인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자 쓴 “서문”은 “진화와 윤리”에서의 극적인 전회에서 다소 후퇴한 입장으로 이해된다.⁶⁰⁾ 종교와 과학을 주 소재로 다루는 □자이곤□에서 “진화와 윤리”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영문학자인 고슬리는 헉슬리의 “진화와 윤리”를 “사회다윈주의를 반박하는 글로 읽기보다는 사회다윈주의의 뒤를 이을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잠정적이고 모호한, 그러나 예지적인 탐색”으로 볼 것을 제안한다. 고슬리가 생각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우주의 능동적인 작인으로서의 인간상을 그리는 실존주의였으며, 그가 생각한 예지적인 탐색의 영역은 현대의 포스트모더니즘이었다.⁶¹⁾

이 글의 독자들은 리치먼이나 일찍이 헬판트가 읽었던 것처럼 “진화와 윤리”에서 인간의 사회와 윤리가 결국 생물학적 결과임을 견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몽상적인 사회주의를 거부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이한 자유주의에 경고를 던지는 헉슬리의 모습을 읽었다. 그리고 헉슬리의 로마니즈 강연에서 청중들 역시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들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진화와 윤리”는 이렇게 강렬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연설이면서, 또한 과학이 사회와 윤리에 빛을 던지려 들어서는 안 된다는 역설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진화와 윤리”가 지니는 이러한 역설 속에서 1890 년대에 변화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의 과학자의 위상 변화를 엿볼 수도 있다. 라이트먼은 과학자(scientist)라는 개념이 현대적인 의미로 정의되는 시기를 빨라 잡아야 1890 년대라고 판단한다.⁶²⁾ 빅토리아 시대를 다루는 역사학자들에게 그 시대는 분명 과학의 시대로 여겨졌다. 문인들, 관리들, 종교인들 그리고 노동자들이 과학 강연에 참석하고 과학을 논했으며, 또 과학을 자신들의 활동의 일부로 여겼다.⁶³⁾ 스테판 콜리니의 표현에

60) Paul Thompson ed., *Issues in Evolutionary Ethic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1995), “Introduction,” pp. 18-20.

61) David Goslee, “Reconsidering Thomas Huxley: Evolution, Ethics, and Equivocation: T. H. Huxley’s Conflicted Legacy,” *Zygon* 39 (March 2004), pp. 137-160.

62) Bernard Lightman, “Introduction,” *Victorian Science in Context* (Chicago: The Chicago University Press, 1997), p. 10.

63) David Knight, *The Age of Science: The Scientific World-view in the Nineteenth Century* (Oxford: Basil Blackwell, 1986). 특히 ch. 1, “The Age of Science?”

의하면 순수과학이 수많은 공적 영역으로 쏟아져 흘러 들어가던 시기였다.⁶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의 위상이 논란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지던 시기는 아니었으며, 더구나 과학자의 위상이 확립되어 있던 시절은 더욱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과학은 그 활동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 수단이 아니었다. 헉슬리는 외과의사보의 직위로 해도를 작성하는 제국 군함 래틀스네이크호를 타고 남양을 항해하는 동안 정박 중이던 호주에 살고 있던 헨리에타와 약혼을 하지만 8년 뒤 런던에 있는 광산학교의 전임강사가 되기까지 이들은 결혼을 결정하지 못했다.

광산학교의 강사가 되면서부터 곧장 헉슬리는 과학 과목이 대학의 교양과목으로서 종교나 사회를 보는 올바른 방법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갔다. 영국이 초등 및 중등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1870년대 초반의 결정적인 시기에 헉슬리는 과학의 상업적, 산업상의 효용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대중강연과 저술을 통하여 전문 분야의 지식으로서의 과학보다는 세상사를 올바르게 재단하고 분석하는 유일한 방법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문화적 권위로서의 과학을 강조했다. 따라서 헉슬리는 1830년대에 휴일이 제시했던 특정분야의 학문 활동을 행하는 전문인이라는 의미로서의 과학자(scientist)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려 애썼다.⁶⁵⁾ 헉슬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과학 실천인들은 자신들을 과학인(man of science)라고 불렀는데, 특정분야의 활동에 전념하는 전문인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과학적인 안목과 능력을 지닌 지식인으로서의 문화적 권위를 강조하는 태도였다.⁶⁶⁾

하지만 1880년대 이후 이제 교육제도 내에서 교과목으로서 과학의 위상은 확립되어 있었다. 더 이상 광범위한 사회 영역에 균형 잡힌 판단력과 분석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과학의 위상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안이한 자유주의자들이나 극단적인 사회주의자들이 똑같이 과학적인 시각을 표방하며 영국 사회를 안팎에서 위협하고

64) Stefan Collini, *Public Moralists: Political Thought and Intellectual Life in Britain, 1850-1930* (Oxford: Clarendon Press, 1991), p. 200.

65) 과학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려 한 정도가 아니었다. “진화와 윤리”를 출판한 그 해에 그는 과학자라는 단어를 썼다는 이유로 잡지의 편집인에게 항의 편지를 쓰기도 했다. *Science-Gossip* 1 (1894), p. 243.

66) Sidney Ross, “‘Scientist’: The Story of a Word,” *Annals of Science* 18 (1962), pp. 65-85; Ruth Barton, “Men of Science’: Language, Identity and Professionalization in the Mid-Victorian Scientific Community,” *History of Science* 41 (2003), pp. 73-119.

있었다. “진화와 윤리”는 헉슬리가 이들 스펜서와 같은 자유주의자들이나 월리스와 같은 사회주의자들에 맞서면서 그들로부터 과학이라는 갑옷을 벗겨내는 정치적 연설이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연설은 과학이 사회 일반의 영역들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근거를 포기하는 선언문으로 읽힐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과학인들은 사회에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식인으로서가 아니라, 사회로부터 격리된 독립적인 연구를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만들어 내는 전문인으로서의 인간상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었다.⁶⁷⁾

67) Paul White는 그의 *Thomas Huxley*, p. 170에서 이러한 상황을 과학인이라는 페르소나의 죽음(The End of the ‘Man of Science’)으로 표현했다.